

중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 연구: 선충원의 『边城』 번역본 분석

신 다 영(Da young Si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Da Young Shin (2014), Aspect of Rewriting in Chinese-Korean Literary Translation: Focusing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Biancheng *This paper analyzed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Chinese novel Biancheng (Border Town) written by Shen Chongwen in terms of Andre Lefevere's Rewriting theory. There are several versions of translation of Biancheng in Korea, and this study chose the one translated by Jung in 2009.*

Lefevere claims that translation is the most obviously recognizable type of rewriting, and the rewriting of the original text is controlled by ideologies and poetics of the target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This paper tried to analyze Jung (2009) in terms of Lefevere's theory: it examined the aspects of 'rewriting' in Jung (2009), and categorized them into several categories.

The study found that the most remarkable type of rewriting in Jung (2009) in terms of the form of the text was annotation. There were a total of 90 footnotes, for the original work contained abundant cultural elements that cannot easily be understood by Korean readers. In terms of the content, the most remarkable aspect of rewriting was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became more hierarchical in the target text, under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rewriting, literary translation, culture, Lefevere, system

1. 서론

1980년대 문학 번역 연구에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는 종전의 언어학적, 규범적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기술적 연구로 확대되었다. ‘문화적 전환’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과 이론 중 하나로 Andre Lefevere의 다시쓰기(Rewriting)¹ 이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시쓰기 이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된 번역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분석도 있는데, 번역학이 독립적 학문으로서 발전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시쓰기 이론에 대한 논의나 사례 분석 자체도 해외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기존의 사례 분석 또한 영한/한영 번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한/한중 번역과 관련된 연구로는 형태적 차원에서 중한 출판번역물의 다시쓰기를 분석한 김혜림(2011), 문체론적 측면에서 한중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를 분석한 금지아(2012) 정도가 있다. 김혜림(2011)은 분권, 부분 생략 및 순서 조정, 재편집 등 (원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번역 텍스트의 다시쓰기 사례를 분석한 연구이며, 금지아(2012)는 은희경 작가의 소설 『마이너리그』에 나타나는 의인화 표현, 의성·의태어 표현, 언어 유희, 반어투 등 문체적 요소들이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분석한 연구이다. 중한, 한중 방향을 통틀어 다시쓰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중한 방향의 경우 아직까지 내용 차원의 분석 연구가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양상을 내용과 형태 두 가지 차원에서 두루 고찰하는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亚洲周刊)』이 선정한 ‘20세기 중국 소설 100강’ 중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 루쉰(魯迅)의 『呐喊』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중국 현대 문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선충원(沈从文)의 중편 소설 『边城』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Lefevere의 다시쓰기 이론에 입각하여 선충원의 『边城』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다시쓰기가 이루어졌는지 형태와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두루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Lefevere의 다시쓰기 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원 텍스트와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시도한 후, 4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번역을 ‘다시쓰기’로 보는 관점은 Lefevere(1992)에 의해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 Lefevere(1992)는 번역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다시쓰기(the most obviously recognizable type of rewriting)’²이며, ‘가장 영향력이 큰(the most influential)’ 형태의 다시쓰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시쓰기를 통제하는 요소로 그는 문학 시스템 안의 전문가(professional)와 문학 시스템 밖의 후원자(patronage)를 꼽는다. 여기서 전문가는 비평가, 평론가, 문학 분야의 교육자, 번역자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문화의 지배적 시학(poetics)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y)에 의거하여 그들의 사회·문화에 수용 가능한(acceptable) 형태로 문학의 다시쓰기를 시도한다.

한편, 후원자는 ‘문학의 읽기, 쓰기, 다시쓰기를 장려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권력(the powers that can further or hinder the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of literature)’, ‘전문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delegates authority to the professional)’ 집단으로 권력자, 종교 집단, 정당, 특정 사회 계층, 왕실, 출판인, 신문·잡지·방송 등의 미디어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Lefevere에 의하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배적 시학보다는 이데올로기에 무게를 두고 문학 시스템과 여타 시스템의 관계를 통제한다.

Lefevere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다양한 규범과 믿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번역에 있어서 역자의 선택을 통제하는 요소이다(Wang, 2012).

Lefevere의 ‘다시 쓰기’ 이론은 시스템 이론, 문화적 전환, 기술 번역학, 조작학과 등과 맥을 함께 한다.

우선, 번역을 ‘다시쓰기’로 보는 Lefevere의 관점은 문학을 ‘문화’라는 상위 시스템에

¹ Lefevere의 ‘Rewriting’을 허지운 외(2010), 정연일 외(2006) 등은 ‘개작’으로 번역하고, 류현주(2012), 김혜림(2011) 등은 ‘다시쓰기’로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시쓰기’를 사용한다.

² 류현주(2012:88)의 번역 참조.

속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³ 그러한 의미에서 시스템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스템으로서의 문학이 상위 시스템인 사회 문화 시스템에 속한 다른 시스템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본 그의 관점⁴은 문학 나아가 번역학의 지평을 언어학적 층위에서 “맥락, 역사, 관습 등의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the larger issues of context, history and convention)”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Bassnett and Lefevere 1990:11). 이른바 ‘문화적 전환’을 대표하는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번역을 ‘다시쓰기’로 보는 관점은 연구의 무게 중심이 원 텍스트에서 번역 텍스트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또한 ‘번역은 이해해야 한다’는 규범적 접근이나 원 텍스트를 절대적 위치에 놓고 번역 텍스트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언어학적 접근을 넘어서 번역 텍스트 그 자체를 기술한다는 점, 즉 번역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다시쓰기’를 충실성의 잣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기술적 번역학에 속한다.

Lefevere는 Theo Hermans가 1985년 편집 출간한 논문집 『문학의 조작(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에 「왜 다시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가?(Why Waste Our Time on Rewrite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시쓰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훗날 이 논문집의 이름을 따 ‘조작학파(Manipulation School)’로 불리게 된 학파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목표 문학의 관점에서 모든 번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원문을 어느 정도 조작하게 된다’(Hermans 1985:11)고 한 Hermans의 주장은 Lefevere가 제시한 다시쓰기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Zhang(2010)은 Lefevere의 다시쓰기 이론이 번역학에 기여한 바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기술적 접근을 통해 보다 다양한 번역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했다.

³ Literature, to go back to the description of the Russian Formalist theorists, is one of the systems that constitute the “complex ‘system of systems’ known as a culture. Alternatively, a culture, a society is the environment of a literary system.” (Lefevere 1992: 14)

⁴ The literary system and the other systems belonging to the social system as such are open to each other: they influence each other.” (Lefevere 1992: 14)

Lefevere의 다시쓰기 이론은 종전의 규범적·언어학적 차원에서 기술적·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번역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충실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다양한 번역 현상을 번역학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었다.

둘째, 번역학 연구의 무게 중심을 원 텍스트에서 번역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과거 원 텍스트의 종속물로 간주되던 번역 텍스트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번역 텍스트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시쓰기 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번역을 단순한 언어간 치환이 아닌 동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번역을 진공 상태의 언어적 치환이 아닌,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 하에서 완성되는 산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폴리 시스템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시 쓰기 이론은 종전의 번역 이론에 비해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었다.

Zhang(2010)의 위와 같은 평가는 다시쓰기 이론이 번역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명확히 기술함과 동시에 몇 가지 논의를 파생시킨다.

첫째, 종전에는 충실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다양한 번역 현상을 번역학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었다는 평가는 Lefevere의 이론이 ‘충실하지 않은’ 번역 텍스트를 설명하는 데에만 유용한 이론인가 하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Huang and Lee(2013)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든 번역은 다시쓰기’라는 르페브르의 관점에 입각해 보았을 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번역은 도착어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시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 역시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충실성이 높은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무게 중심이 번역 텍스트로 옮겨졌다면 번역을 ‘다시쓰기’로 보는 Lefevere의 이론에서 원 텍스트는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연구의 무게 중심이 번역 텍스트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번역 텍스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만약 원 텍스트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다시쓰기’를 부정하기보다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지 결코 원 텍스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번역은 다시쓰기’이지만 그 ‘다시쓰기’는 원 텍스트를 떠난 번역자의 창작이 될 수는 없다. ‘다시쓰기’라 할지라도 그 분석은 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 텍

스트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3. 사례 분석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의 문호이자 고대 문화 연구가인 선충원(沈从文)이 1934년 완성한 그의 대표작 『边城』과 중문학자이자 문학 평론가인 정재서 교수가 2009년 출간한 번역본 『변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⁵

『边城』의 번역본은 정재서(2009) 외에도 심혜영(1989), 김영구 외(2007) 등이 있다. 심혜영(1989)은 중앙일보사가 출판한 중국현대문학전집의 일부로 번역되었고, 김영구 외(2007) 또한 『중국현대문학작품선』에 수록된 15개 작품 중 하나로 『边城』을 번역하였다. 정재서(2009)는 단행본으로 『边城』만을 수록한 첫 번역본으로 본 연구는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원 텍스트인 『边城』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자면, 이 작품은 1930년대 중국의 쓰촨(四川), 후난(湖南) 일대를 무대로 한 중편 소설로 중국 문학사상 향토 정서를 가장 잘 그려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된다. 쓰촨성과 후난성의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 차둥(茶峒)을 배경으로 뱃사공의 손녀딸 취취(翠翠)의 슬픈 사랑을 통해 인간의 선량함과 순수함을 그려낸 이 작품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풍속, 경관을 세밀히 묘사하며 민족지 문학의 특성을 드러낸다.⁶

정재서(2009)는 ‘근대의 격랑 속에서 제국주의의 침탈에 저항했던 암울한 시절, 수려한 자연 풍광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순박한 삶을 통해 중국 민족이 이상으로 회구하는 온유한 인성의 경지를 보여줌으로써 상실된 중국 민족의 긍지를 회복하고 미래에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소설’로 『边城』을 평가한다. 또한 ‘미려하고

유연한 문체’가 ‘다정하고 포근한 느낌’을 선사하며, 심지어 ‘신화적’,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고 작품의 문체를 평가한다. 역자 서문과 역자 해설을 통해 드러나는 원 텍스트에 대한 역자의 인식과 평가는 번역 텍스트의 다시쓰기 양상과 그러한 다시쓰기를 시도한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정재서(2009)는 ‘충실성’의 기준으로 볼 때 원문예의 충실성이 높은 번역 텍스트에 속한다. 실제로 역자 또한 서문에서 ‘모든 번역은 직역을 바탕으로 한 의역,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직역의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의역이라는 평소의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문학 번역 텍스트 가운데 충실성이 높은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바, 이와 같이 충실성이 높은 텍스트에서도 ‘다시쓰기’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면, ‘모든 번역은 다시쓰기’라는 Lefevere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충원(沈从文)의 대표작 『边城』과 한국어 번역본 정재서(2009)를 비교 분석하였다. 『边城』은 중국 내의 수많은 출판사에서 여러 판본을 발표했는데, 정재서(2009)는 중국 강소교육출판사(江苏教育出版社)에서 발행한 『边城集』(2005)를 원 텍스트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일한 판본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본 연구는 2012년 장강문예출판사(长江文艺出版社)에서 발행한 『边城』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⁷

구체적으로는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형태,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다시쓰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분석 결과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번역 텍스트의 다시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술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⁵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边城』의 줄거리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 참조).

⁶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바이두백과(<http://baike.baidu.com>)에 수록된 작품 소개 참조 <http://baike.baidu.com/subview/20249/5063452.htm?fr=aladdin>

⁷ 동일 판본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나, 연구자가 현재 구할 수 있는 몇 개 판본을 비교한 결과 출판 주체가 달라도 본문 텍스트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판본을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연구 결과

3.3.1. 형태 분석

분석 결과, 형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다시쓰기는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길지 않은 중편 소설에 무려 90개에 달하는 역주가 첨가되었다.

그 중 인명에 대한 역주가 23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역자 서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역자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의 발음 표기는 통례대로 현대 중국어 발음을 달 계획이었으나 작품의 우미한 분위기와 고유의 어감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전통 한자 발음으로 모두 바꿨다’고 설명한다. 즉,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와 어감을 전달하기에는 한자 발음으로 인명을 표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번역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중국 문학 번역이 중국어 발음으로 인명을 처리하는 관례를 고려하여 해당 인물의 이름의 한자 표기와 중국어 발음을 역주로 단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인물 중 하나인 ‘傣送’의 경우 한국식 한자 발음대로 ‘나송’으로 번역하고 역주로 ‘나송(傣送:누오송 Nuósòng[중국어])’라고 역주를 달았다.

다음으로는 사물에 대한 역주가 22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중에는 한국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는 사물, 한국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단어가 존재하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아 그 의미를 역주로 단 사물 등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인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번역을 한 경우(예를 들어 ‘小斑鼓’는 ‘소반고’로 번역하고, 그 외형 및 특징을 역주로 달았음)와 그것이 어떤 사물인지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예를 들어 ‘高脚鼓’는 ‘긴 다리 북’으로 번역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원 텍스트의 본래 중국어 명사를 역주로 달았음),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船篷’을 ‘땀’으로 번역한 후 그것이 어떤 사물인지에 대해 역주로 설명을 달았다.

사물에 대한 역주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원 텍스트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원작 자체가 중국의 문화적 요소, 특히 지방색이 강한 문화적 요소를 다량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주의 보완 없이 그러한 부분을 TT 독자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힘들다.⁸ 신화화 등 중국 문화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도 널리 알려진 역자로서는 이러한 중국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최대한 전달하는 것을 번역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명에 대한 역주가 21개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명 역시 앞서 언급했듯 인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번역하고 대략적 위치 등 정보를 역주로

달았다. 원 텍스트는 실존하는 마을을 배경으로 그 주위의 실제 지명을 다수 언급하고 있어 이 부분도 역주의 도움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동식물명, 단위(길이·무게 등), 중국의 관용구, 중국의 군제와 관련된 어휘⁹, 제례·음악 등 민속 문화와 관련된 어휘 등이 역주로 처리되었다. 정재서(2009)의 역주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그 밖에 형태적 측면에서의 다시쓰기로 문장의 재구성을 들 수 있다. 한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춰 짧은 단락을 앞 단락이나 뒷 단락으로 통합시키거나 대화문을 새로운 단락으로 나누는 등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표 1. 선충원의 『边城』번역본 정재서(2009)에 추가된 역주의 유형

역주의 유형	예	개수
인명	天保, 梁红玉	23
사물	月琴, 青盐	22
지명	桃源, 青浪滩	21
민속	起水, 山歌	6
군제	四十九标, 什长	4
관용구	张冠李戴, 好事多磨	4
동식물	草莺, 虎耳草	4
단위	丈, 斤	3
기관명·관직명	厘金局, 参将	3

3.3.2 내용 분석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¹⁰

⁸ 실제로 원 텍스트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이 그 지방 출신이 아닌 중국어 원어민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선충원 본인이 주를 달거나 『边城』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별도로 사전에 수록된 어휘도 많다.

⁹ 정재서(2009)에 따르면 선충원은 소학교 졸업 후 한동안 군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당시의 군대와 관련된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역자는 역주로 처리하였다.

첫째는 TT로 번역되는 과정, 즉 한국 문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등장 인물 간의 관계가 원작에 비해 위계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어에 비해 명확한 한국어의 경어 체계, 즉 언어적 차이 때문에 그러한 다시쓰기가 일어난 면도 있지만 TT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역자 나아가 역자가 속한 한국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으로 보인다. 나룻배를 관리하는 뱃사공 노인과 주인공인 사공의 손녀 취취는 물론이요, 부두를 관장하는 뱃사람들의 우두머리 순순(順順) 또한 별볼 일 없는 말단 군인 출신으로 다만 제대하여 귀향한 후 사업이 잘 되어 이웃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두를 관장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산성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인물이 된 경우이다. 산촌의 왕씨 자위단장(中寨王团总) 또한 도적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무장 단체의 우두머리로 마을 유지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귀족이나 관료가 아닌 평민 신분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원 텍스트에서는 그를 가리켜 ‘乡绅(시골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역자는 이를 ‘양반’이라고 번역하였다(정재서 2009:110). 이와 같은 번역 과정에서 순순의 둘째 아들 나송을 두고 사랑의 라이벌 관계에 놓이는 주인공 취취와 왕씨 자위단장의 딸의 신분 격차는 한층 더 강화된다. 순순의 경우에도 원 텍스트의 ‘顺顺’은 번역 텍스트에서 주로 ‘순순 선주’로 번역되고 ‘顺顺家’ 또한 그냥 ‘순순의 집’이 아닌 ‘순순 선주 댁’으로 번역되며, 취취 집안과의 격차가 한층 더 강조된다.

이와 같은 개별 어휘뿐만 아니라 등장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다시쓰기가 일어난다. 순순의 둘째 아들 나송이 취취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단오절 용선 경주를 구경하러 강가에 온 취취는 자신을 강가에 두고 어디론가 가버린 할아버지를 우두커니 기다리다 강가에 정박한 배 위에 앉아 있던 두 뱃사람과 나송의 대화를 듣게 된다. 나송은 용선 경주가 끝난 후 여흥을 위해 마련된 오리 잡기에 참여했다가 오리를 성공적으로 포획하고 물 위로 올라오는 중이었다.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에서 뱃사람과 나송이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船上人听到水面的喊声, 在隐约里也喊道: “二老, 二老, 你真干, 你今天得了五只吧。”
那水上人说: “这家伙狡猾得很, 现在可归我了。” “你这时捉鸭子, 将来捉女人, 一定有同样的本领。”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물 위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둘째 도련님, 참 재주도 용하시네요. 오늘 벌써 다섯 마리째지요?”

그러자 물 위의 사람이 말했다.

“요놈 참 약은 놈이야, 드디어 내 것이 되었지만.”

“둘째 도련님, 오늘은 그냥 오리만 잡았지만 훗날 색시감을 낚을 때도 용하실 거예요.”

순순의 둘째 아들 나송은 부두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이자 일꾼을 여럿 부리는 선주의 아들로서 아버지, 큰 형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아버지 순순은 아들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뱃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게 하며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장사를 보낸다. 이와 같은 작품 속 묘사로 미루어 볼 때 뱃사람들은 나송을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인정하지만 함께 뱃일을 하며 동고동락하는 그를 어려워하지 않고 허물없이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의 장면에서 이들은 나송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배 위에 앉은 채로 그와 대화를 주거나 받거나 한다. 그런데 이들 간의 관계가 TT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다. 우선 호칭부터도 ‘二老¹¹’는 ‘둘째 도련님’으로 번역되고, 나송은 뱃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는 반면, 뱃사람은 그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쓴다. 이 두 뱃사람이 나송 집안의 일꾼이라는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원 텍스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한층 위계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순순의 큰 아들 천보(天保)가 취취를 마음에 두고 그녀와의 결혼 의사를 밝힐 때에도 순순은 딱히 신분의 차이를 언급하며 이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취취에 비해 순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사실이나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는 비교적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번

¹⁰ 이 절은 번역본 정재서(2009)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므로 정재서(2009)에 따라 등장 인물의 이름을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표기한다.

¹¹ 百度词典(<http://dict.baidu.com>)에 따르면 선충원의 작품 『边城』에 등장하는 ‘二老’라는 표현은 산시(陕西) 일대에서 ‘둘째’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老二(중국어로 ‘둘째’)와 동일한 의미이다.

역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는 귀천의 차이가 한층 더 부각되는 위계적 관계로 재현된다.

이와 같은 다시쓰기가 이루어진 데에는 중국어에 비해 경어 체계가 발달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언어란 한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매체이듯 중국에 비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더욱 위계적인 특성을 보이는 한국의 문화가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원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시골 사람들의 거친 행동이나 말투가 번역 텍스트에서는 다소 완곡하게 재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有人心中不安，抓了一把钱扔到船板上时，管渡船的必为——抬起，依然塞到那人手心里去，俨然吵嘴时的认真神气：“我有了口量，三斗米，七百钱，够了。谁要这个！” 어떤 이들은 미안해서 엽전 한 움큼을 뱃전에 놓고 간다. 그럴 때면 사공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그 사람 손에 도로 쥐어 주며 짐짓 다투기라도 하듯 정색하고 말한다. “난 관가에서 식량을 타먹는 사람이오. 쌀 서 말에 돈 700전이면 살 만하단 말이오. 이런 건 안 받아도 되오!”

취취의 할아버지가 일하는 나루터는 관가 소유이고, 할아버지는 적지만 관가에서 녹을 받는다. 때문에 나룻배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뱃삿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저 배를 타기 미안한 마음에 굳이 사례를 지불하려고 해도 그는 한사코 이를 거절한다. 위의 예문은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대목이다. 노인이 돈을 거절하자 손님은 나룻배의 널판 위에 엽전을 한 움큼 던져버리고 가버리는데(抓了一把钱扔到船板上), 번역 텍스트에서는 ‘엽전 한 움큼을 뱃전에 놓고 간다’고 손님의 (정에서 출발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다소 거친 행동을 비교적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또 짐짓 화가 난 듯 정색하며 거절하는 사공의 말(“谁要这个!”)도 ‘이런 건 안 받아도 되오!’라고 비교적 부드럽게 번역하였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예문도 원 텍스트에 비해 다소 완곡하게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爷爷，你疯了！再说我就生你的气！”

“할아버지 어떻게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더 하시면 저 화낼 거예요!”

순순의 큰 아들 천보가 취취에게 관심을 보이자 할아버지가 취취의 의중을 떠보는 과정에서 취취가 화를 내며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하는 대목이다. 산골의 가난한 집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열세 살 어린 소녀라면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미쳤어!’와 같은 무례한 말도 서슴없이 뱉을 법하다. 번역 텍스트의 ‘어떻게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도 어린 손녀가 노인에게 하기에는 좀 무례한 말이지만 비교적 부드럽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완곡화가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중한 번역 시스템에 있어서 ‘완곡화’가 하나의 주된 경향 내지는 시학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역자 해설에서 언급된 ‘미려하고 유연한 문체’ 혹은 ‘다정하고 포근한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한 번역자 개인의 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중한 번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번역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중한 번역 시스템의 시학이라는 관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원 텍스트에서는 딱히 외형적으로 거칠게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번역 텍스트에서는 거칠게 처리된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이다.

“她陪他们喝酒唱曲子，心里可想我。她知道我在船上！”

“그녀이 저 사내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생각할 거야. 그녀는 내가 지금 배 위에 있는 것도 알고 있다네.”

역자가 원 텍스트의 여성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她’에 대한 대응 표현으로 ‘그녀’나 ‘그 여자’ 대신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제시한 첫 번째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인은 몸을 파는 기녀이다. 원 텍스트의 저자 선충원은 민심이 순박한 까닭에 창녀들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을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 역시 글썽나 읽은 사람들의 통념으로 그녀들을 질책하거나 깠보는 일이 없었다.’고 창녀들에 대한 작품 속 지역 사회의 시각을 기술하고 있다(정재서 2009:32). 그러나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보면 기녀를 가리켜 ‘그녀’이라고 거칠게 부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한 이유에서 원 텍스트의 ‘她’는 ‘그녀’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 텍스트에서 묘사하는 상시(湘西, 후난성 서북부) 지역의 모습을 보다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자 번역 텍스트에서는 원 텍스트에 그려진 이미지가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当秋冬之际水落时，河床流水处还不到二十丈，其余只是一滩青石。
가을과 겨울철에 물이 줄면 그 거리가 20장 정도로 좁아지고 물이 빠진 곳에서는 강바닥에 깔려 있던 푸른 돌들이 드러났다.

가을과 겨울철이 되면 강물이 줄어들어 본래 푸른 돌이 깔려 있던 강바닥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풍경을 묘사한 이 대목에서 원 텍스트가 ‘나머지는 푸른 돌들 뿐(其余只是一滩青石)’이라고 묘사한 부분을 ‘물이 빠진 곳에서는 강바닥에 깔려 있던 푸른 돌들이 드러났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그려냈다.

넷째, 원 텍스트의 전체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원 텍스트에는 없는 표현을 조금씩 추가하여 번역 텍스트를 한층 더 생동감 있게 재현하였다. 이는 얼핏 보면 원 텍스트에 없는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유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은 번역 텍스트의 형상화, 즉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다시쓰기인 반면,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예문의 경우는 문장 자체에 생동감을 더하기 위한 추가이며, 그 정도 역시 텍스트의 의미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미미하여 세 번째 유형과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等到把船拉过了溪，一到了家中，看明白了醉倒的另一个老人后，就完事了。但另一件事，属于自己不关祖父的，却使翠翠沉默了一个夜晚。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야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지만 할아버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자신의 일로 취취는 그날 밤 병어리가 되었다.

원 텍스트에서는 나송을 보고 난생 처음으로 이성에 눈을 뜬 취취가 그날 밤 말 없이 사색에 잠긴 모습을 ‘밤새 침묵했다(沉默了一个夜晚)’고 표현했는데, 정재서(2009)는 이를 ‘그날 밤 병어리가 되었다’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아래와 같은 예도 있다.

于是又想：“三十二个人摇六匹橹，上水走风时张起个大篷，一百幅白布铺成的一片东西，先在这样大船上过洞庭湖，多可笑……”

그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서른 두 명이 여섯 개의 긴 노를 저어 물길을 거슬러오를 때 바람을 맞아 큰 돛을 올린다. 그 돛은 100폭이나 되는 흰 면포를 짜서 만든 것이다. 먼저 이런 배를 타고 동정호를 지난다. 아이 얼마나 우스워…….’

단오를 맞이하여 취취가 지난 두 해의 단오절 순순의 두 아들과 연이어 만난 일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공상에 젖는 모습을 그린 부분이다. 원 텍스트의 ‘于是又想(그래서 또 생각했다)’을 ‘그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의성어, 의태어를 더하거나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더한 예도 있다. 그 중 의인화의 예가 다음과 같다.

天上已起了云，热风把两山竹篁吹得声音极大，看样子到晚上必落大雨。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꺾고 산 위의 대나무 숲은 뜨거운 바람에 크게 울부짖었다. 보아하니 밤에 큰 비가 쏟아질 것이 틀림없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던 날 밤 음산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날씨로 그려낸 부분이다. ‘뜨거운 바람이 양쪽 강가 산 위의 대나무숲을 흔들어대는 소리가 아주 컸다(热风把两山竹篁吹得声音极大)’라는 묘사를 ‘대나무 숲이 크게 울부짖었다’와 같이 의인화하여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했다.

그 밖에 이미 고정된 의미의 명사로 자리잡은 중국어 명사를 다시 해체하여 비유적 표현으로 전환한 예도 있어 눈길을 끈다.

杨马兵想起自己年青作马夫时，牵了马匹到碧溪岨来对翠翠母亲唱歌，翠翠母亲不理睬，到如今这自己却成为这孤雏的唯一靠山唯一信托人，不由得苦笑。
그가 젊어서 마부로 일할 때 말을 끌고 이곳 벽계저에 와서 취취 엄마한테 노래를 불러줬으나 그녀는 본 척도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그녀의 어린 자식을 보살

피는 유일한 보호자로 산 같은 큰 존재가 되었으니 생각하면 쓴 웃음만 절로 날 뿐이었다.

위 예문의 '靠山'은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명사¹²이다. 이 단어를 해체해보면 '靠'는 '기대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山'은 한자 그대로 '산'을 뜻하는 명사이다. 역자는 이와 같이 단어를 해체하여 '산 같은 큰 존재'로 취취에게 있어서 마부 양씨의 든든한 보호자 이미지를 매우 재치 있게 표현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Lefevere의 다시쓰기 이론, 즉 '번역은 다시쓰기'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중국의 문호 선충원의 『边城』의 한국어 번역본 정재서(2009)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형태적으로는 주석이 가장 두드러진 다시쓰기로 드러났고, 다음으로는 단락의 재구성이 관찰되었다. 특히 주석의 경우, 류현주(2012)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고려할 때 매우 강력한 다시쓰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저서들은 문학텍스트(text) 자체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비평가의 소개와 보충 설명 및 해석을 담은 보충 텍스트(paratext)가 추가된 주석판(annotated text)에 더욱 의존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한다.(86)

한편, 텍스트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다시쓰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번역 텍스트에서는 원 텍스트에 비해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가 위계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번역 텍스트에서는 원 텍스트에 등장하는 시골 사람들의 거친 행동이나 말투

가 다소 완곡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번역 텍스트에서는 원 텍스트에 없는 요소의 추가를 통해 원 저자가 그려내고자 한 후난성 서북부 지역의 소소한 풍경을 더욱 형상화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번역 텍스트에서는 의인법, 비유법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원 텍스트에 비해 생동화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위의 네 가지 유형의 다시쓰기 중 첫 번째 유형이 Lefevere(1992)가 말한 이른바 이데올로기에 의한 다시쓰기의 가장 명백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유형들의 경우 역자 개인 또는 한국문학 시스템의 시학에 의한 다시쓰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심혜영(1989), 김영구 외(2007) 등 동일 원작의 다른 번역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면 번역의 다시쓰기 양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류현주(2012)가 언급했듯 역자 서문, 역자 해설 등 보충 텍스트(paratext)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보충 텍스트에 대한 연구 또한 다시쓰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향후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¹² 靠山:[名] 比喻可以依靠的有力量的人或集体。(现代汉语词典 참조)

참고 문헌

- Bassnett, S. and Lefevere, A. (eds.)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and New York: Pinter.
- Chao, J. and Han, J. (2005). *Xiandai hanyu cidian (Modern Chinese Dictionary)*.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 Hermans, T. (ed.) (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London: Croom Helm.
- Huang, S. and Lee, E. (2013). Gaixielun dui wenxue fanyi piping de qishi (Enlightenment of Rewriting Theory towards literary criticism). *Duanpianxiaoshuo* 36: 17-18.
-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hen, C. (2012). *Biancheng (Border Town)*. Wuhan: Changjiang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 Wang, H. (2012). Fanyigaixie lilun yanjiu zongshu (Overview of the studies on Translation Rewriting Theory). *Jiannanwenxue* 4: 95.
- Zhang, W. (2010). Jiedu andelie lefeifole de fanyi gaixie lilun (Analysis of Andre Lefevere's Rewriting Theory). *Journal of Qiongzhou University* 17(3): 115-117.
- Keum, J. (2012). Stylistic Analysis of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Novels – Case study of Heekyung Eun's Minor Leagu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3(5): 33-57.
- Kim, H. (2011). Forms of Rewriting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for Public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2(2): 53-73.
- Ryu, H. (2012). (Comparative) Literature and Translation Studies: "Rewriting".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3: 83-95.
- Shen, C. et al. (1989). *Border Town, Fortunes of the Li Estate and others* (H. Shim and S. Kim Trans.). Seoul: Joongang Daily.
- Shen, C. (2009). *Border Town* (J. Jung Trans.). Seoul: Taurus Books.

부록

선충원(沈从文)의 『边城』 줄거리

쓰촨(사천四川)성과 후난(호남湖南)성의 경계에 위치한 차둥(다동茶峒) 마을 인근 바이허(백하白河) 상류의 나루터 하얀 탑 아래에 뱃사공 노인과 손녀 취취(翠翠), 그리고 누렁이 한 마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차둥 산성에는 부두를 관장하는 순순(顺顺)이라는 호방한 성격에 의리를 중시하는 사내가 있는데 그는 텐바오(천보天保)와 뉘쑹(나송 雒送)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어느 해 단오절에 용선 경주를 구경하러 마을에 간 취취는 뉘쑹을 만나 이성애 눈뜨게 되고, 이듬해 단오절에는 텐바오가 취취를 만나 사랑하게 되어 동생보다 한 발 앞서 취취의 할아버지에게 혼담을 꺼낸다. 하지만 취취가 답을 회피하자 할아버지 또한 텐바오에게 확답을 주지 않고 어영부영 세월을 보낸다.

다음 해 취취와 재회하여 그녀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뉘쑹은 형 텐바오 역시 취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형제는 그 지방 풍습대로 달밤에 취취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 그녀의 화답을 받는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맞기로 한다.

첫날 밤, 노래를 잘 하는 뉘쑹이 먼저 밤새 노래를 부르지만, 하루 종일 사춘기 감성에 젖어 울다 지쳐 잠든 취취는 그에게 화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취취는 꿈속에서 노래를 듣고 몸이 높이 떠오르는 경험을 한다.

한편, 동생의 노래를 들은 텐바오는 스스로 위축되어 경쟁을 지레 포기하고, 심란함을 달래려 강 하류로 나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사고로 익사하고 만다. 취취가 뉘쑹의 노래를 듣고 신비한 꿈을 꿴다는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그녀와 뉘쑹을 맺어주고 싶어하지만 텐바오의 죽음으로 인해 순순과 뉘쑹 모두 할아버지에게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

형의 죽음 때문에 취취 할아버지에게는 냉랭한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취취를 두고 있는 뉘쑹은 취취 문제로 아버지 순순과 다투고는 배를 타고 집을 떠난다. 뉘쑹이 다른 부잣집 딸과 결혼할 거라는 소문과 뉘쑹 부자의 차가운 태도에 상심하던 할아버지는 호우가 내리던 날 밤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고, 그제야 순순은 혼자 남은 취취를 둘째 며느리로 삼겠다고 제안한다.

취취는 뉘쑹이 돌아오면 그의 의사를 묻고 난 후 거취를 정하겠다 하고 그를 기다린다.(이 작품은 이와 같이 개방된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Author's email address

printempo@hanmail.net

About the author

SHIN, Da Young completed her doctoral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working as a freelance Korean-Chinese translator and conference interpreter, she also lectures at Ewha's GSTI.